

山林經營會報

發行人：韓 榮 錫
 主 幹：崔 東 均
 發行處：韓國山林經營者協會
 住 所：서울特別市 城北區 安岩洞
 5街 134-5
 電 話：923-4372

林業先進地 光陵試驗林 視察



現地에서 現況說明을 듣고 있다.

本會 會員 40 餘名은 지난 6.27(금) 國內임업선지지로 임업시험장 光陵試驗林을 視察 見學하였다. 本 시험림은 우리나라 代表的 林相으로 이미 널리 잘 알려진 곳으로 시험림으로서는 물론, 學術的 價値로 보거나, 우리들 山林經營人들에게도 없어서는 안될 示範林으로서의 산 教育場이다.

총 2,300 여ha의 시험림내에는 213種에 이르는 樹木의 종류가 있고 잣나무, 소나무, 리기다, 잣나무 등 인공조림지 1,010 ha의 숲이 정연하고 울창하게 잘 가꾸어져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外國樹種展示林등이 있다. 임목축적도 ha당 135 m를 상회하고 있어 世界 어느나라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林相이다.

1914년에 아카시아 조림 1.2 ha와 1915년에 리기다소나무의 조림은 養苗에 의한 人工造林으로서의 효시가 되어왔음으로써 그 의의가 한층 더한 곳이기도 하다.

그간 시험림으로서만 이용하는 管理體制였으므로 一般人的 出入을 극히 統制하여 왔었으나 金후 公開原則下에 지난 83년부터는 綜合樹木園을 造成하고 一般樹木園以外에도 濕地植物園에 8科 95種, 200餘種의 종류가 있는 花木園과 水生植物園, 盲人植物園, 또 392種의 熱帶樹木을 保有한 溫室을 具備하였다.

또 唯一한 山林博物館은 오는 11월에 준공개관을 목표로 지금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데 소장 展示品은 기증자의 주소, 성명 등 표찰을 붙여 영구보존케 함은 물론, 소유권은 기증자에게 그대로 두고 展示만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음으로 일반인의 많은 참여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2 페이지)

光陵林의 敎訓

會長 韓 榮 錫

光陵林은 靈山 金剛山에서 시발한 廣州山脈의 支脈 天寶山脈 南端部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 동북간 약 40 km 지점인 南楊州郡 榛接面에서부터 議政府市 1 個洞과 抱川郡 內村面에 걸쳐 있는 東西 5 km, 南北 9 km에 달하는 山林으로서 稜線에는 蘇利峯(536 m)과 竹葉山(600 m)이 頂點을 이루고 있다.

본시 光陵林은 李朝 第7代 世祖大王과 王妃 貞熹王后를 모신 王陵林으로서 옛날에는 陵參奉으로 하여금 至嚴하게 445年間을 管理시켜 왔으나 日帝侵略後 1913年 國有林區分調査時 陵所주위 150餘町步로 壓縮시키고 2,331町步를 國有林으로 策定, 試驗林으로써 造林, 撫育, 近代養苗를 시작하여 왔던 것으로 당시 國民이 王室의 尊嚴性弱화策略에는 義憤을 금치 못하는 바 이었으나 서울 洪陵林業試驗場과 함께 近代林業을 이르게 된 요람지가 되게 된 것이다.

世祖大王은 人倫的인 면으로서는 至嚴하게 追仰할 수 없다는 感傷論도 있으나 國政의 紊亂, 北方野人들의 侵擄, 100餘名이나 되는 王孫들의 無節制한 生活態度, 老臣들의 貪欲과 威勢擴張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를 逆謀의 徵候마저 나타나 나라가 衰亡하는 破場과 같은 상황에 이르르매 首陽大君의 伯父인 讓寧大君과 仲伯父인 孝寧大君등은 애태우며 首陽에게 大權摠攬을 極力勸告하는가하면, 朝臣들의 杞憂에 欸緘口, 側近의 唐慌은 首陽의 初志一貫 心身을 바쳐 幼王 端宗을 輔弼하여 宗廟社稷을 지키려든 努力이 허사임을 한탄케 하여 失意에 젖어갈 무렵, 朝廷의 累卵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革命勢力이 대두하여 舉事計劃을 착착 進行시켜 나가 首陽은 이에 同調하지 않을 수 없는 難境에 빠졌으며 필경 快刀亂麻의 國家革新을 斷行하였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世祖大王은 國權強化와 더불어 外交國防을 튼튼히 하고, 財政과 文化, 民生問題등 모든 부문에 있어 父王 世宗大王의 偉業을 더욱 精要하게 發展시킨 英明強建한 君主로서 大王의 業績은 國史에 燦然히 빛나고 있다.

大王의 業績을 간추려 보면 貞觀政要主解, 東國地圖編纂, 國稅調査, 國朝寶鑑의 纂述, 屯田制 實施, 經國大典, 東國通鑑編纂, 八方通貨鑄造, 易學要解, 蠶書, 禪宗永嘉集, 金剛經彥解, 窺衡印地儀製作, 土地測量 北方野人征伐 및 招諭등 많은 大業의 成就가 있는 것이다.

本陵所의 選定은 大王이 狩獵을 좋아하여 수렵행차때 직접御意로 定해 놓은 곳으로서 地勢도 좋은 곳이라니와 李朝歷代 어느 大王의 陵所보다도 山林이 그윽하여 大王의 威風과 靈儉이 壯嚴하게 서리고 있다.

現在 林業試驗場中部支場으로 되어 있는 이 光陵試驗林 林相은 天然林이 56%, 人工林이 43%로써 大體的으로 均衡을 이루고 있으며 林木蓄積도 매우 높아 315千 m^3 로 1ha當 平均 135 m^3 의 蓄積量을 保有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總蓄積量 林野 1ha當 平均 26 m^3 에 비하면 약 5배가 넘는 것으로 林業先進國인 日本의 平均 약 100 m^3 에도 능가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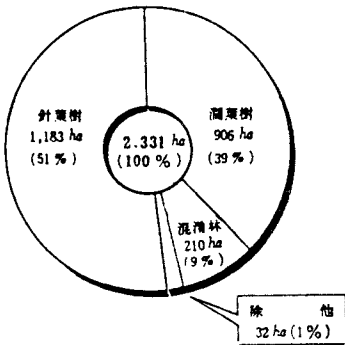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150年前에 심은 針나무群은 1ha當 127本으로 보아 약 600 m^3 가 推算된다고 하니 이는 또한 世界的으로 유명한 西獨의 우수한 模範林地蓄積量과도 맞먹는 것이다.

더우기 우리가 留念할 것은 本 試驗林의 天然林은 數百年 長々한 歲月에 資源造成的인 林木蓄積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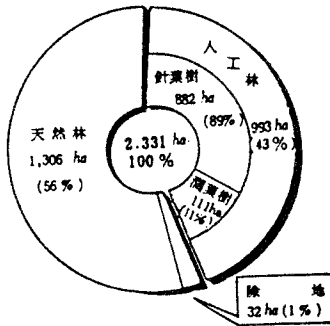
經營林業이 아닌 自然保護의 側面의 守護管理林인고로 天然林의 경우 樹間間격이 고르지 못하고 따라서 通直聳立生長이 缺如되고 있으며 本格的 人工造林은 尙 65年미만부터이므로 아직 成長期의 幼令林이 많은바 만일 150여년전 젓나무를 심을때부터라도 經營林業을 할 수 있었더라면 지금의 蓄積量인 1ha當 135m³이 문제가 아니라 300m³, 400m³ 이상에 이르렀을 것임을 추산하기에 어렵지 않다.

試驗林 林相內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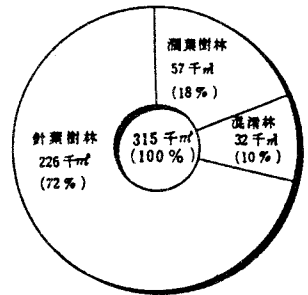
○ 林相別面積



○ 人工林實績



○ 林相別蓄積



山林內 樹種으로는 闊葉樹, 신갈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물푸레나무등이 많고 針葉樹로는 造林樹種으로 낙엽송, 리기다소나무, 젓나무, 잣나무, 리기레다소나무, 방크스소나무등과 在來松이 있고 가래나무, 상수리나무, 느티나무등 활엽수의 新造林樹種도 있으며 木本이 總 213種에 이르고 草本도 780餘種에 達한다. 野生鳥獸는 鳥類가 80種으로서 世界的으로 滅種된 것으로 알려졌던 크낙새 (天然記念物 197號)가 4~5쌍 棲息하고 있으며 獸類가 노루, 산돼지, 토끼, 쪽제비, 청설모 등 13種, 花卉로는 복수초 (어른생이 꽃) 피나무, 은방울 꽃들이 아름답다. 特別히 蘇利峯일대와 竹葉山一圓은 處女林으로서 動植物研究地帶의 寶庫라 할 수 있다.

試驗林一圓에는 名勝地로서 光陵의 壯嚴한 陵所外에도 竹葉山과 蘇利峯의 美林과 情緒와 韻致가 깃들인 育林湖, 古色이 蒼然한 奉先寺, 奉永寺등의 古蹟이 있다.

人工林 (造林)으로 生長하는 樹種別 生長度를 살펴보면

수	종	임령	본수	ha當재적 (m ³)	성장율 %	
낙	엽	송	60	551	218.72	4.10
	"		38	643	206.38	4.10
리	기	다 소 나무	56	566	264.14	4.42
	"		38	677	198.62	4.42
젓	나	무	38	790	223.94	3.83
	"		56	393	247.62	3.14
잣	나	무	60	409	290.80	2.52
	"		36	910	223.94	4.18

수	종	입 령	본 수	ha當재적(m)	생장율%				
가	래	나	무	63	366	137.12	-		
	"			38	666	219.94	-		
상	수	리	나	무	60	380	218.77	2.49	
느	티	나	무	60	666	219.94	3.11		
리	기	레	다	58	577	219.84	4.42		
방	크	스	소	나	무	58	689	219.84	4.42

本表는 많은 調査値中에서 60生年 前後에 달하는 壯令林과 30年代에서의 旺盛히 자라는 成長林을 뽑아 본 것으로 先進國 生長水準에 조금도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凌駕勢인 것이다. 本表外로 林令 64年이 되는 잣나무는 333 m에 달하는 蓄積量도 示顯되고 있다.

參考로 本 試驗林의 林道施設을 보면 '86 現在 ha當 12.8 m (30 km) 이나 향후 5개년간에 22 m (51 km)로 擴張을 서두르고 있으며 各種 樹木의 生長試驗과 山菜增產栽培試驗, 小徑木工藝品化, 病蟲害觀察과 防除研究, 鳥獸觀察과 益, 害 對策研究등 事業에 熱을 올리고 있다.

또 特記할 것은 本 中部試驗場에는 東洋第一의 樹木園과 山林博物館을 建設中에 있으며 머지않아 그 威容을 드러낼 것이다.

以上으로 光陵과 試驗林을 살펴보았거니와 우리는 世界 어느 林業先進國에 比하여도 山林建設에 不足할 바가 없다. 우리의 古代는 樹海國家였던 것이다.

우리는 晩時이나마 第6次 國家經濟5箇年計劃事業에서 山林建設의 大前進이 있어야 農山村의 經濟力을 굳건히 하며 名實相符한 先進祖國創造를 建設해 갈 것이다. (끝)

協會는 強力한 對政府交涉團體로 育成되어야 한다.

(뜻있는 山主의 協會加入을 勸함)

山林은 단순한 木材生産 機能에만 있지 않고 國土保全과 木材生産 이외에도 各種 林産物의 生産으로 農山村의 經濟力向上은 물론, 水資源涵養, 國民保健, 休養, 精神, 文化, 情緒등 公益機能面이 크므로 모든 면에서 根本이 되는 國家의 무궁한 발전의 基盤을 造成하는 事業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世界的인 山林經營의 추세는 木材生産 機能보다는 오히려 公益的 機能面을 置重하여 政策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先進國들의 山林經營의 추세입니다.

本是 山林經營이라는 것이 超長期性 低所得事業임으로 國家의 強力한 政策의 支援이 없이는 個人이 山林에 投資하기란 甚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構造的 취약점을 先進國일수록 政策的 支援과 財政的 支援으로 이를 補完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現實은 우리들 山主가 만족할만한 先進國水準의 支援惠澤을 받지 못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지나친 輸入木材로 말미암아 山地立木값은 말이 아니고 모처럼의 刻苦끝에 이룩한 造林地의 育林

管理를 아예 포기하는 事例가 많이 늘어나 뜻있는 林業人들의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全國의 山主여러분! 特히 우리 協會에 아직까지 加入치 않으신 山主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政府에서 善處하여 주는 익은 감이 떨어질때까지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山主 스스로 自求策을 講究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立場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山主個人이 할 수는 없으며 하나로 뭉쳐 組織力으로 建議, 妥協, 투쟁으로 우리의 權益을 保護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協會(社團法人 韓國山林經營者協會)의 機能은 林業經營協議, 林業技術普及, 相互技術情報交換, 愛林思想鼓吹등 機能以外에도 財政協議 및 山林政策建議를 行할 수 있는 唯一無二한 山主를 代辦하는 民間組織體인 것입니다.

그동안 業務의 活性化를 期하지 못하였던 點도 없지 않았으나 全國의 500餘 會員과 山林有關機關의 協助와 山主를 代辦하는 唯一한 民間團體라는 點에서 育成強化하여야 된다는 非등한 輿論에 힘입어 이제 日就月長으로 發展을 거듭하여 오고 있습니다.

하오나 우리는 보다 더 強力한 對政府交涉團體로서 育成되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서는 더 많은 뜻있는 會員이 규합되고 強力한 組織體로 커 나가야 所期의 成果를 達할 수 있습니다.

우리協會는 篤林家가 主軸이 되어 있기는 합나다만 非篤林家라 하더라도 門戶는 항상 開放되어 있습니다.

뜻있는 山林所有人士들이 많이 參與함으로써 協會發展은 勿論, 이 나라 林業發展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特히 篤林家께서는 政府의 施策上으로도 協會加入이 의당 되어야 하겠으며 아직 篤林家가 되지 않은 山主께서는 다음의 篤林家特惠支援事項에 여러모로 施業上에 有利한 點이 있으니 이를 考察하시어 模範的인 篤林家가 될 수 있도록 努力해 나가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최)

篤林家特惠支援事項

(關係規定拔萃)

1. 養苗, 造林, 育林, 保護, 施業등에 필요한 事業費 우선 融資 또는 일부 補助.
2. 種苗, 農藥, 肥料, 機械등 기자재의 우선적 貸與 및 지원.
3. 篤林家 營林計劃作成認可時 사유림 영림계획운영 요강 제 17조 규정에 의한 營林計劃상 事業計劃의 自律性を 최대한 認定.

〈關係規定拔萃〉

- 사유림 영림계획 운영요강 제 17조(인가) 1항
독립가가 작성하는 一般營林區는 생산의 保續과 樹種更新原則에 부합되면 인가 신청한 계획대로 인가하여야 한다.
4. 山林法施行規則 제 11조제 7호의 규정에 의한 시업은 施業申告만으로 實行(施業自律性保障)

〈關係規定拔萃〉

- 산림법시행규칙 제 11 조 (申告畢證 交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제 7 호 ;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독립가가 실시하는 다음의 施業
가. 撫育을 위한 間伐
나. 古死木 또는 소생가망이 없는 피해목 벌채
다. 연간 5 ㏎이내의 自家用 伐採
 - 私有林林木伐採實施要領 제 11 조 (사업신고필증 교부등)
③市長郡守는 施業申告畢證의 交付대상에서 除外된 다음 각호의 사업신고에 대하여는 現地確
認없이 書類審査를 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 산림법시행규칙 제 11 조 제 7 호와 같음
5. 산림법 제 27 조 제 2 호 규정에 의한 一般開發地域 代執行자격 부여

〈關係規定拔萃〉

- 산림법 제 27 조 (代執行) 시장 군수는 산림소유자가 제 26 조의 (일반개발지역의 사업시행)
규정에 의한 開發命書を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代
執行하게 할 수 있다.
2.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能力을 갖춘 개인 또는 학교, 법인, 단체
- 山林法施行令 第 30 條 (代執行)
法第 27 條 제 2 호 규정에 의하여 山林開發事業을 代執行할 수 있는 者는 다음 각호 1 에 해당
하는 者로서 시장, 군수가 당해 開發地域의 개발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者로 한다.
1. 50 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篤林家, 法人 또는 團體
2. 공인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法人

6. 營林計劃執行에 있어 사유림영림계획운영요강 제 9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거 伐採量 우선 配定

〈關係規定拔萃〉

- 사유림영림계획 운영요강 제 9 조 (벌채량) 제 4 항 新規로 作成하는 營林區의 伐採量은 시군별
伐採計劃量中에서 제 2 항 및 제 3 항 (自家伐採 5 ㏎, 기인가된 벌채량) 을 공제하고 그 잔량
으로 다음 우선순위에 의하여 伐採量을 순차적으로 책정하여 營林區 벌채량으로 한다.
1. 독립가가 작성하는 영림구벌채 (모범, 법인 우수독립가에 한함)

7. 山林法施行令 第 30 條 제 1, 2 호의 要件을 갖춘 篤林家로서 特殊開發地域 指定申請이 있을 때
는 特殊開發地域으로 우선 지정

〈關係規定拔萃〉

前 5 項 拔萃規定 參照

8. 國有林分收林設定의 우선권 부여

※ 上記 篤林家支援事項중 模範 및 法人독립가에 대하여는 1~8 호까지, 우수독립가는 1~6 호
까지 協業 및 自營 독립가는 1~4 호까지 지원한다.

樹種別 平均胸高 直徑級別 間伐後 殘存本數 基準表 (ha 當)

樹種	區分	平均胸高 直徑 (cm)								
		8	10	12	14	16	18	20	22	24
잣 나무	本數(本)	2,123	1,574	1,234	1,017	877	762	675	598	535
	樹間距離(m)	2.2	2.5	2.8	3.1	3.4	3.6	3.8	4.1	4.3
낙엽송	本數	1,885	1,556	1,326	1,158	1,033	933	839	779	731
	樹間距離	2.3	2.5	2.7	2.9	3.1	3.3	3.5	3.6	3.7
리기다 소나무	本數	2,620	1,956	1,582	1,317	1,108	942	815	714	627
	樹間距離	2.0	2.3	2.5	2.7	3.0	3.2	3.5	3.7	4.0
강원도지방 소나무	本數	*	*	1,878	1,522	1,292	1,101	957	836	739
	樹間距離	*	*	2.3	2.6	2.8	3.0	3.2	3.5	3.7
중부지방 소나무	本數	*	*	1,113	967	861	780	713	659	609
	樹間距離	*	*	3.0	3.2	3.4	3.6	3.7	3.9	4.1
삼 나무	本數	2,614	2,170	1,858	1,634	1,435	1,283	1,130	998	*
	樹間距離	2.0	2.1	2.3	2.5	2.6	2.8	3.0	3.2	*
편 백	本數	2,713	2,251	1,766	1,517	1,337	1,192	1,068	956	*
	樹間距離	1.9	2.1	2.4	2.6	2.7	2.9	3.1	3.2	*
해 송	本數	2,152	1,728	1,441	1,257	1,108	956	822	709	652
	樹間距離	2.2	2.4	2.6	2.8	3.0	3.2	3.5	3.7	3.9
상수리나무	本數	1,145	989	896	816	733	659	599	546	500
	樹間距離	3.0	3.2	3.5	3.5	3.7	3.9	4.1	4.3	4.5

- ※ · 徑級別 殘存基準本數보다 20~30%以上 生立하고 있으면 間伐對象地임.
 · 本表의 徑級別 殘存本數는 適正 間伐時 基準本數이므로 弱度로 할 때에는 한 徑級 아래의 本數를 남기고, 強度로 할때는 한 徑級 위의 殘存本數를 남기고 間伐할 수 있음. 樹間距離는 平均距離임.
 · 平均胸高直徑은 胸高直徑 6cm以上の 林木으로서 對象林分 全體平均임.
 · 淘汰間伐 및 列式間伐은 이 基準의 適用을 받지 아니함.
 · 참나무類 등 一般濶葉樹 (포플러類 除外) 林地에서는 상수리나무 基準表를 適用함.

林業育林裝備 · 산물진화장비
 有 備 物 産
 代表 朴 浩 鎮
 서울特別市 鍾路區 忠信洞 27-8
 ☎ 762-8588, 8589

主要山林病蟲害防除要領

病害蟲名	被害樹種 및 加害部位	生 態	防 除 法
솔잎혹파리	소나무, 곰솔잎에 혹(蟲癭)을 만 듬	1. 成蟲羽化期; 5月中旬~7月上旬 2. 솔잎基部에 혹(蟲癭)을 形成하고 加害 3. 被害가 輕微한 곳에서는 稚樹에 被害가 集中 4. 幼蟲은 9月下旬~다음해 1月(最盛期 11月中旬)에 落下하여 地中 越冬	1. 테믹粒劑 ha當 120 kg을 4月中旬~5月 中旬에 地中處理 2. 포스팜液劑 樹幹注入 3. 林內整理 4. 天敵을 ha當 20,000마리씩 放飼
미국흰불나 방	포플러, 버즘나무, 벚나무, 오동나무, 현사시, 자작나무 등 활엽수 잎을 섭식	1. 어린幼蟲은 거미줄로 집을 짓고 群棲 ○ 1回幼蟲; 5月下旬~7月上旬 ○ 2回幼蟲; 7月下旬~9月中旬 2. 老熟幼蟲은 돌틈이나 樹皮틈에서 번데기 로 越冬	1. 被害初期에 被害葉을 採取 燒却 2. 주른 水和劑 6,000 배液, 비티 1,000 배 液을 5月中旬~9月下旬까지 撒布 3. 潛伏巢設置
오리나무잎 벌레	오리나무, 개암나 무, 박달나무 잎 을 섭식	1. 4月下旬부터 越冬處에서 나온 成蟲이 잎에 産卵 2. 5月下旬에 孵化幼蟲이 群集하여 加害하 고 成長하면서 分散	1. 디프水和劑 1,000 배液 또는 싸이린스 液劑 2,000 배液을 5~6월에 撒布
갓나무넙적 잎벌	갓나무잎을 섭식	1. 成蟲羽化期: 6月中旬~7月下旬 2. 幼蟲加害期; 6月下旬~8月下旬 3. 老熟幼蟲은 7月下旬부터 落下하여 地中 越冬	1. 나크水和劑 1,000 배液 2~3回撒布 ○ 주른水和劑 6,000 배液, 트리무른水和 劑 6,000 배液 1~2回撒布(7~8月)
솔껍질각지 벌레	소나무, 곰솔의 형성층을 가해	1. 年 1回發生, 若蟲孵化期; 5月 2. 密生林分에서 被害 甚함	1. 메치은 乳劑, 디메토 乳劑 800 배液 主 幹 및 가지에 撒布(5~9月) 2. ○ 密生林分에서 劣勢木間伐 ○ 被害木 伐採
밤바구미	밤나무, 참나무의 종실을 가해	1. 成蟲産卵期; 8月中旬~10月下旬 2. 幼蟲은 9월부터 밤에서 脱出하여 地中 越冬	1. 나크液狀水和劑 500 배液, 파프粉劑를 ha當 40~80 kg 2~3回撒布(8月中 旬~10月下旬) 2. 收穫即時 인화음錠劑(1ha當 1錠)로 24時間燻蒸
백송애기잎 말이나방	소나무, 갓나무, 종비나무, 잣나무, 침엽수蓇果	1. 成蟲羽化時期; 4月上旬~5月下旬 ○ 成蟲羽化最盛期; 4月下旬~5月中旬	1. 메프乳劑 1,000 배液 또는 아진포 水 和劑 500 배液 1~2回撒布(4~5月) 2. 카보푸란粒劑 嵩고직경 200gr 地 中處理
황칠나무알 락하늘소	현사시, 포플러류 의 목질부를 가해	1. 成蟲羽化期; 5月上旬~5月下旬 2. 幼蟲加害期; 6월~10월 ○ 2.5cm 以下の 樹幹 및 가지 木質部加害	1. 싸이린스液劑 2,000 배液, 파프乳劑 1,000 배液 2回撒布(5~10月) 2. 被害가지 切斷燒却
소나무류잎 떨림병(葉 振病)	소나무, 곰솔, 갓 나무, 리기다소나 무잎에 발병	1. 3~5월에 早期落葉 2. 有機質肥料가 적을때 被害가 큼. 3. 7~9월에 자낭포자 形成, 傳染	1. 病든 잎을 모아서 燒却 2. 有機質 肥料를 充分히 施用 3. 만코지水和劑 600 배液 樹冠撒布(6回 以上)(3~9月上旬)
잎갈나무떨 림병(落葉 病)	잎갈나무, 일본잎 갈나무잎에 발병	1. 病菌은 病든잎 에서 越冬 2. 5月下旬~7月下旬에 傳染 3. 8月下旬~9月中旬에 早期 落葉	1. 病든 잎을 모아서 燒却 2. 만코지水和劑 600 배液 樹冠撒布(6回 以上)(1~3, 6月中旬~8月, 10 ~12월)

山林經營은 점차 自律施業으로 誘導되어야 한다.

本會理事(서울) 千 正 夏

山主는 行政機關으로부터 造林命命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指示를 많이 받는다.

이는 山林政策上 法에 의한 行政節次인 만큼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더우기 山主를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할말이 없다.

本是 山林法을 비롯한 그 부수된 관계 규정들이 일반적으로 私有財產權에 가하는 規制規定이 다소 強하다고 하는 것은 山林이 단순한 私有財產이기 전에 國土保全的인 次元에서, 또 木材生産機能 이외에 公益的 機能이 큰 점을 감안하여 必然的인 措置로 加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理解는 될 수 있다.

그러나 私有林의 경우는 어떠한 양태든 우선 收益性이 保障되어야 하고 自己의 財產權行事に 있어 最大한 保障받으려 함은 지극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지나친 輸入木材에 밀려 山地林木값은 형편없고 刻苦끝에 造成된 林地가 이제는 撫育間伐등 正常施業을 통한 資源蓄積增大에 노력할 시기인데 間伐材收入만으로는 人件費에도 미치지 못함으로서 撫育施業을 아예 포기하고 있음으로 뜻있는 林業人들은 크게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國家財政형편상 先進國형의 財政의 支援은 期待하기 어렵더라도 모든 行政節次만이라도 쉽고 용이하게 간소화하여 山林投資者들의 투자의욕을 고취시켜야 할진대 너무나 지난친 의무심때문인지 義務와 強制規定이 지나치게 많음으로써 일선 기관에서는 곱씹하면 “안 된다.” “왜 하지 않았느냐”로 일관하게 되니 이는 民怨의 대상이 되고 이로 인하여 不條理를 낳고, 山主는 山主대로 본의아니게 罪人이 되어 물 좋고 공기 맑은 自己山속에서도 숨한번 크게 쉬지 못하고 山林에 投資한것을 오히려 후회만 하고 있는지가 오래다.

이와같은 義務만을 강요하고 있는 行政을 펼치다 보니 어이없는 施業命命을 받아 본 例가 있다.

어느 機關에서 발한 施業命命을 보니

- 사업종류 ; 치수가꾸기 (인공조림지)
- 사업내역 ; 잡관목류제거, 덩굴제거, 가지치기

로 되어 있다.

언뜻 보기에는 그럴사하다 싶지만 자세히 보니 下刈作業을 해야 할 造林地에서 가지치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林地는 認可된 營林計劃에 의하여 施業한 造林地인데 施業命命이 어떻게 해서 내려졌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다.

理解할 수 없는 사업명령을 받고 보니 여러가지 생각이 떠 오른다. 國세징수법에 의하여 滯納處分을 당할까 겁도나고 造林을 안했으면 이러한 명령도 받지 않았을 텐데……하고

과거 一般木商들에 의한 고정관념때문에 까다롭고 어렵게 묶어만두는 行政, 命令만하는 行政을 이 제는 과감하게 탈피하여야 하겠다.

사실 애착을 갖고 나무를 가꾸어온 독립가라면 自律的으로 시업을 맡겨도, 伐採를 하라고 하여도 함부로 벨 수 없는 것이 독립가의 심정이 아닐가?

林業도 收支맞는 事業이 되도록 모든 制度的 장치를 동원하고 命令을 극소화하여 투자욕을 고 취시켜 나가자.

사업명령을 남발하여 官과 民과의 괴리를 형성치 말자. 命令 좋아하는 行政, 그리 發展된 行政이 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會費를 納付하신 분〉 (6.11 ~ 7.10)

?	20,000	유 인 회	20,000
?	20,000	김 정 태	20,000
강 신 호 (동아제약)	200,000	우 종 윤	20,000
유 재 상	20,000	김 형 우	20,000
김 의 수	20,000	박 상 옥	20,000
노 태 현	40,000	전 재 성	20,000
정 차 석	20,000	김 경 옥	20,000
신 건 승	30,000	권 종 홍	20,000
송 회 용	40,000	김 응 섭	20,000
조 석 래 (효성물산)	20,000	김 명 규	20,000
?	20,000	심 석 택	20,000
박 명 준	20,000	박 조 영 (경남지부장)	200,000
김 기 봉	20,000	김 인 호 (전주제지)	200,000
강 두 원	20,000	이 규 원	50,000
이 석 준	20,000	김 의 노	20,000
한 정 일	20,000	정 태 인	30,000
권 오 진 (서해개발)	30,000	김 용 진	20,000
한 회 동	20,000	이 건 훈	30,000
안 재 만	20,000	김 정 옥	20,000
양 한 기	30,000	한 철 응 (이사)	200,000
박 응 섭	40,000	정 연 갑	20,000
김 원 식	20,000	김 용 진	20,000
박 찬 극	20,000	고 흥 기	20,000
노 명 관	20,000	백 완 기	20,000
김 추 남	20,000	계	1,840,000 원

※ 일부 회원들께서는 회비를 納入하고도 協會에 연락치 않아 성명미상으로 처리가 되는 사례가 있어오니 회비를 納入하신후에는 반드시 협회에 연락을 주셔야 정리가 잘 되 겠습니다.

산 딸 나무

②

재질堅固·꽃·樹形도 美麗, 觀賞가치높아

— 病蟲害 전혀없어 公園·가로수도 훌륭 —

外國에서 훌륭한 庭園樹로 인기를 끌고 있는 樹種도 우리나라에서는 雜木취급을 받는 경우가 가끔 있다.

우리나라 中部이남 野山에서 흔히 볼수 있는 산딸나무가 바로 그것. 이름없는 雜木취급을 받아 이 나무를 아는 사람조차 드문 실정이다.

그러나 西歐에서는 국가원수나 저명인사들이 記念植樹를 할때, 이 나무를 즐겨 선택하며 「Dog Wood」라 하여 집에서 기르는 愛犬처럼 사랑하고 아낀다.

60年代말 美國 존슨大統領이 日本을 방문하여 記念植樹한 樹種도 바로 이 산딸나무.

특히 하얀 꽃잎이 十字형으로 갈라져 마치 十字架를 연상시킬뿐 아니라 예수그리스도가 이 나무로 만든 十字架에 못박혔다고 하여 기독교인들은 성스럽게 받들고 있기도 하다.

높이 10 m까지 자라는 이 나무는 우선 樹形이 우산모양으로 아름답고 모과나무 같은 줄기가 철따라 벗겨져 觀賞가치를 다양하게 높여준다.

개나리, 진달래, 목련에 이어 라이락꽃이 질 무렵이면 어느덧 화사한 봄은 가고 초여름에 접어드는데 이때부터 산딸나무가 눈같이 하얀 꽃을 송이송이 피워 올려 6월을 환하게 밝힌다.

전년에 자란 가지끝에 용기종기 생긴 꽃눈이 5월에 접어들면서 부풀기 시작, 6월 중순이 되면 꽃을 싸고 있는 萼가 하얗게 퍼져 흰 나비가 떼지어 가지에 앉은듯 나무전체를 뒤덮는 것이다. 꽃도 청순하게 아름답지만 꽃을 보호하는 萼가 새하얗게 먼저 피어 觀賞效果를 더 높여 준다.

4월의 여왕 목련이 호화롭고 화려하다면 산딸나무의 꽃은 청순하고 고귀한 멋을 풍긴다고 할 수 있다.

딸기처럼 빨갱게 익는 열매는 직경 1.5~2.5 cm, 그 안에 여러개의 種子가 들어있다.

이 열매는 다른 과일보다 甘味가 높아 입맛을 돋구어 준다. 열매가 익을 무렵 불타오르듯 빨갱게 물드는 단풍 또한 빼놓을 수 없는 觀賞거리다.

이 나무는 층층나무과이며 너무 단단하여 박달나무 쇠박달나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잔뿌리가 많아 옮겨심어도 移植力이 강해 잘 자라며 病蟲害가 거의 없어 정원수는 물론 公園樹, 街路樹로도 훌륭하다.

挿木은 봄과 여름철에 한해 가능하다. 좀더 많은 苗木을 얻으려면 채취한 열매를 화분등에 담아 果肉을 부식시킨 다음 얻은 種子를 12월중 모래를 섞어 露天埋藏하였다가 봄에 파종하면 된다.

큰나무들틈이나 음지에서조차 잘자라고 추위에 대단히 강하다.

京畿道 光陵地域에 자라는 산딸나무는 꽃잎이 커 준산딸나무라하고 濟州道에 自生하는 것은 꽃잎이 좁아 소리딸나무라고 부른다.

꽃색갈이 분홍인 것은 꽃산딸나무, 또는 미국산딸나무라고 하는데 이 나무는 耐寒, 耐乾性이 약해 中部以北 지역에서는 자라지 않는다. (林試 趙武衍 研究官 資料)

林業界 消息

○ **山林廳 幹部 現地視察 研修** ; 山林廳은 지난 6.27 ~ 6.28 2일 간에 걸쳐 本廳課長, 營林署長 및 管理所長을 대상으로 강원도 平昌 蓬坪 協業體와 江陵林業機械訓練院을 訪問하고 私有林協業經營 및 林業技能人訓練事業에 對한 現地視察教育을 實施하였다.

- **篤林家班 特別教育** ; 林業研修院은 86年度 篤林家班 特別教育을 7.7 ~ 7.10 (3박4일)까지 特別教育實施 (49名)
- **大韓紙製 工場移轉** ; 城東區 光장동에 자리한 大韓製紙 (代表 양승학)는 現工場을 충북 강의 면 쌍청리로 移轉코자 지난 7.2일 起工式을 가졌는데 이곳 地域社會發展은 물론, 管内山主들의 폐간재를 利用한 收益을 쉽게 도모할 수 있어 이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
- **本會 慶北支部 理事會開催** ; 本會 경북지부는 7.10 理事會를 개최하고 業務活性化 방안 및 運營에 관한 회의를 가졌다.
- **本會 全南支部 總會開催** ; 各道支部 業務活性化 對策의 일환으로 全南支部 總會를 7.26 (日) 10:00 에 동 지부사무실 (지부장 최기영, 光주시 동구 금남로 5가 91 대성약국 33-5187) 에서 개최예정인바 이 자리에는 本會 韓榮錫 會長이 參席하여 活性化 對策을 논의코자 하오니 全南管内 全會員은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廳人事 〉

- | | | | |
|-------------|-------|---------|-------|
| ○ 昇 進 企劃管理官 | 李 芝 馥 | 管理課長 | 安 相 國 |
| 營林課長 | 裴 基 植 | | |
| ○ 轉 補 總務課長 | 申 完 秀 | 企劃豫算擔當官 | 河 用 鎬 |
| 行政管理擔當官 | 權 五 台 | 利用課長 | 李 柱 聖 |
| 保護課長 | 孫 玘 周 | 造林課長 | 李 輔 植 |
| 治山課長 | 李 仁 鎬 | 技術指導課長 | 金 泳 達 |
| 經營企劃擔當官 | 柳 根 永 | 中部營林署長 | 朴 順 祚 |
| 南部營林署長 | 林 鍾 潤 | | |

〈 公 知 事 項 〉

○ **本誌 全國 郡 및 山林組合에 擴大配布** ; 本會誌는 그 誌令이 이제 겨우 5호에 불과하여 극히 日淺하므로써 여러가지로 未治한 점이 많으나 全國의 會員은 물론, 山林有關機關, 在野 林業人등 많은 분들의 聲援과 協助에 힘입어 이번호 (제5호)부터는 전국의 郡 山林課와 山林組合에까지 擴大 配布키로 하였습니다.

보다 알찬 協會誌로써 키워주실것을 바라오며 會員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林業에 發展的인 素材의 原稿라면 內容에 관계없이 항상 환영하오니 많은 參與있으시기 바랍니다.